



10 단계 : 타종교와의 대화

“기독교와 헬라사상”

요 1 : 1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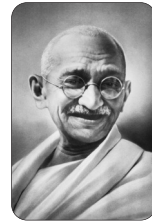
2011. 9. 28 (수), 10.1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1. 토착화와 혼합주의

기독교가 다른 문화에 전파될 때,
토착화 또는 혼합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됨.

- 1) 토착화 :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킴
- 2) 혼합주의 :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하나의 카스트,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 (간디)



■간디 (Mahatma Gandhi)
1869. 10. 2 ~ 1948. 1. 30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법학
반영불복종운동
인도국민회의파 연차대회 비폭력 저항
사티아그라하 투쟁 선언

2. 바알 신앙의 현대적 의미 : 기독교 신앙의 혼합화를 요구함

- 1) 물질적, 쾌락적, 비도덕적, 이기적.
- 2) 인간의 죄악 된 육신적 욕망들을 대표함.
- 3) 엄청난 힘을 가짐. 프로이드의 성혁명, 마스의 유물론 혁명,
계몽주의의 이기주의 혁명
- 4) 종교적 혼합주의 : 하나님의 신앙과 함께 섞임.
- 5) 선교의 열정이 굉장히 강함 :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화하려 함.

6)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나 축복 위주로 바꾸며,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꿈.

7) 공동체의 파괴 : 이웃은 점점 도구가 됨.

3.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사야 : 제사와 삶의 분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 1 : 10-13)

아모스 :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5 : 24)

호세아 : 영적인 간음

4. 현대 사상과 바알

1) 공산주의의 유물론

2) 프로이드의 성 해방

3) 잘못된 자본주의

(로버트 벨라의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5. 오늘날 한국 교회

- 1) 점점 혼합주의 형태로 나아감.
- 2) 기본 신앙, 십자가 없는 부활 신앙, 적극적 (긍정적) 사고 방식,
개교회주의
- 3) 사회성 상실.
*독립 교단의 등장

6.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 1)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님 : 물질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님.
- 2) 성령 안에서:
- 3)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 Peace, Joy)
- 4)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됨을 강조.
* 개인을 존중하는 공동체 (이기주의나 집단이 아님)

헬라 철학과 기독교

1. 영지주의 (Gnosticism)

- 1) 플라톤(Plato)의 이원론
동굴의 비유, 몸은 영혼의 감옥...

■ 참고 서적
Benjamin Walker, Gnosticism
: Its History and Influence

(요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일 1 :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요이 1 : 7)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2) 마르시온 (2세기) : 최초의 성경 편집

구약 성경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약 가운데서는 바울 서신과

누가 복음의 일부만 인정함.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에 사도가 아니며

바울만이 진정한 사도.

마르시온의 성경편집에 자극을 받아

정통 교회는 성경의 정경화를 진행했고,

393년 북 아프리카의 히포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목록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확정함.

2. 영지주의와 기독교

1) 근본 : 초월적이고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빛의 위 세상(upper World of Light)에

속하신 분. 그리고 우리 우주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

2) 우주 : 만물의 기원은 “첫 원칙”에서 생겨났으며, 이는 순전하고

완전하며 전능한 힘을 가지며 영원하고 무한함.

신은 기술될 수도 이름 지어질 수도 없으며 이름과 범주를 넘어서.
 신은 모든 기원을 앞서며, 스스로 존재하고, 피조되지 않음.
 처음이 없기에 끝도 없음. 또한 신은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음.
 시간, 공간 개념은 적용되지 않음.

3) 하나님의 아들: 영지주의에 따르면 예수님 삶의 주된 사건들은 인류의 영적인 진화의 재현(recapitulation)으로서 이를 요약하여 최상화하며 아울러 고대의 신화에 기록된 인류의 소망이라고 말함.

로고스 또는 말씀 (Word) 이며, 아버지와 성령의 성품을 나누어가짐.
 비록 아들은 신적이지만,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물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남.
 아들은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에 앞섬. 독생하신(only begotten)
 이란 표현은 아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됨.

예수는 신으로서 육체를 입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음.(요 8 : 59)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록 음식을 사람처럼 먹었지만 배설물이 없었고, 위낙 절제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음식이 예수를 부패시킬 수 없었음.

예수는 어떤 인간적인 본성을 취할 수 없었기에 결코 고통당할 수 없었으며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seemed to suffer) 실제로 고통을 겪지 않았음.(The Docetists들, seemers)
 ‘십자가를 진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환상!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리스도는 고난 받지 않음.
 역사적인 예수는 신성한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에 불과 함.
 그리스도가 지옥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취했으며,

성육신은 요단 강에서 올라올 때 이루어짐. 그리스도의 사명은
가롯 유다의 배반까지였으며, 그 뒤는 인간 예수가 담당.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는 지옥에 내려갔으며 여기서 Hades를
다스리는 세력들을 파괴함.

먼저는 자신을 구속하기 위해,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죽음과 지옥을 없애기 위함.

4) 천상의 존재들 : 수직적인 계층이 있음.(hierarchy)

크게 둘로 나누어짐. 선한 천사들(빛의 위 세상을 위해 일함)과
악한 천사들(빛의 아래 세상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일함).
인간은 우주를 스며들어있는 근원적인 이중성 (the primordial
duality)에 참여되어 있음.

5) 인간 : 우주에는 인간이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함.

하나님과 demiurge의 중심.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지어지며, 빛의 위 세상에서 만들어짐.

그러나 빛의 위 세상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물질에 묶여 있고,
demiurge의 족쇄에 걸려 있음.

이로부터 구원 받는 데에는 도덕이나 선행은 아무 관계가 없음.

오로지 로그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대한

일종의 초월적인 지식(gnosis)에 의존함.

세상의 법칙은(도덕, 종교, 사회적인) 구원의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음.

만물을 다스리도록 명령 받음.

Adamas 즉, invincible 이라고 불리워짐.

사탄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을 질투함.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인간을 반역에 참여토록 함.

아담이 반역하자, 그에게 별로 육신을 줌.

따라서 세상과 인간은 실패작 임.

6) 데미우르게 (The Demiurge)

영지주의의 근본 신앙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창조주는
최고의 하늘에 있는 신과 다르다는 것. 창조된 신,
즉 사탄은 aeons의 주장이며(chief), 천상에서 특권을 가진.
아주 존경받기에 성부의 부 섭정(viceregent)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빛을 지닌 Lucifer라고도 불리우기도 하고,
때로는 Jesuel(하늘의 예수란 뜻)의 큰 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함.

하늘에서 타락이 시작 됨. 사탄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짐.
떨어진 천사로서 사탄이 우주를 창조함.
이제 그는 세상의 힘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적함.
이 demiurge는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대적함.
성부 하나님과 달리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며, 복수하는 신,
진노하는 신이며 이 잔인한 신이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움. 모세와 엘리야는 여호와의 대변자들.
구약을 정죄했으며, 보존할 부분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 부분.

영지주의 복음서들: 도마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의 탄생...

7) 성경 : ‘구약’은 유대 신에 의해서 영감 받은 책으로서
조심해서 해석해야 함.

‘신약’은 빛을 본 유대인들이 쓴 글이며,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분은 유대적인 요소들이 있음. 마르시온이 최초의 성경을 만듦.